광주-대구 에너지전환 분야도 '달빛동맹' 강화한다

행안부 공모 선정 '달빛동맹 햇빛찬란e 플랫폼 구축위원회' 발대식

광주시와 대구시가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도 '달빛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지난 29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양 도시 시민의 에너지전환 활동 지원을 위한 '달빛동맹 햇빛찬란e 플랫폼 구축위원회'와 2022년 에너지 전환마을 통합 발대식을 개최했다. 달빛동맹 햇빛찬란e 플랫폼 구축 사업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에 광주시와 대구시가 함께 참여해 선정됐다.

광주시는 '에너지 전환마을 지원 플랫폼'을 개발하고, 대구시는 시민햇빛발전소 지원 플랫폼인 '누구나 햇빛발전 지원 플랫폼'을 개발해 양 도시 시민이 에너지 전환마을과 시민햇빛발전소 건설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달빛동맹 햇빛찬란e 플랫폼' 개발에 양 도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시민, 전문가, 행정이 참여하는 '달빛동맹 햇빛찬란e 구축위원회'를 각각 구성해 운영한다.

이날 발대식을 가진 에너지 전환마을은 광주시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5개 마을에 이어 올해도 공모를 통해 5개 마을을 선정했다. 기존 5개 마을은 마을별 교육·홍보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사업을 이어가고, 신규 5개 마을인 동구 지산·서구 발산·남구 사직·북구 문산·광산구 수완마을은 올 상반기에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마을별 특화사업을 진행하는 등 총 10개 마을이 에너지전환 마을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광주시는 이번 에너지 전환마을 및 '달빛동맹 햇빛찬란e 구축위원회' 통합 발대식을 통해 에너지 전환마을 참여단체와 사업수행 기관인 국제기후환경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올해 에너지 전환마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날 임명장을 받은 '달빛동맹 햇빛찬란e 구축위원회' 이순형 위원장 등 위원들은 내년 8월 플랫폼 개시 전까지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된다.

손경종 광주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활동에 더욱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기를 바란다"며 "달빛동맹의 도시인 광주와 대구가 손잡고 추진하는 햇빛찬란e 플랫폼이 양도시 에너지 전환과 시민햇빛발전소에 관심있는 시민에게 최적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는 광주와 대구 양 도시 시민들의 에너지전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달빛동맹 햇빛찬란e 플랫폼 구축위원회'와 2022년 에너지 전환마을 통합 발대식을 지난 29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광주시, 타랑께 운영구역 대학가 등 확대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개최 전용노선도 단계적 추가 설치

광주시가 공유자전거 '타랑께' 이용구간을 대학가 등으로 확대한다.

광주시는 지난 2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문영훈 행정부시장 주재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를 개최하고, '무인 공유자전거 타랑께 운영구역 확대안'과 '자전거 전용노선 설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도시철도 2호선 혼잡구간을 제외하고 평탄한 지역 위주로 확대하는 것을 조건부로 의결했으며, '자전거 전용노선 설치안'은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일정을 감안해 기존 1순위 설치구역이었던 임방울대로를 3순위로 바꾸는 등 우선순위를 수정 의결했다.

시는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상무지구 일대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타랑께'를 전남대, 조선대 등 대학가 등지와 광주천 자전거도로 구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한다. 대학가는 그동안 '타랑께' 설치 요청이 가장 많았던 지역으로, 이용구역 확대 시 학생들의 친환경 통학 수단으로의 활용이 기대된다.

광주시는 또 자전거 주행성 개선을 위해 관내 주요 간선도로에 자전거 전용노선을 설치할 예정이다.

설치 후보지는 광주역~광주 챔피언스필드 구간, 본촌 산단사거리~일동중학교 구간, 첨단지구~수완지구 풍영정천 구간이며 지하철 2호선 공사 상황 등에 맞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설치한다.

노선 설계 시에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기존 차로에 미치는 교통 영향을 최소화하고 차량, 보행자, 자전거 모두의 안전과 조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5개년)을 수립하고 주요 자전거 정책에 대한 자문을 통해 광주시의 자전거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는 기구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행정옴부즈만 "소음 피해 시내버스 회차지 이전" 권고

광주시 행정옴부즈만위원회는 1일 "장기간 소음 피해를 유발한 시내버스 금남 58번 회차지 이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1997년 북구 동림동에 조성된 회차지는 25년간 인근 주민에게 불편을 안겼으며, 지난해 7월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 결정으로 소음피해 배상액이 지급되기도 했다. 광주시와 버스운송사업 조합은 경계 부분에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주민 A씨는 최근 회차지를 옮겨달라고 옴부즈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방음벽이 설치되면 미관을 해치고 단절감을 줄 뿐 아니라 회차지 이전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옴부즈만위원회는 광주시에서 2024년 1월까지 도시철도 중심 시내버스 노선 개편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반경 1㎞ 안에 다른 시내버스 회차지가 있어 대체 장소 마련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의견을 제시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6곳 적발

16명 검찰에 송치

광주시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을 집중 단속해 16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서구 모 아파트재개발단지와 북구 모 아파트재개발단지 사업장은 비산먼지 억제조치 위반으로 대기 중에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고, 광산구 모 사업장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불법 설치 등으로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지난 1월부터 4월말까지 이뤄졌으며, 대기 중 환경오염행위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운영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광주시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 관할 자치구에서 행정처분토록 통보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이 드러난 9곳은 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자체 수사를 통해 총 1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현 광주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이 직접 호흡하는 공간인 생활권 내 오염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민주, 광주 기초의원 20개 선거구 후보 60명 발표

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난 30일 광주지역 기초의원 20개 선거구 후보 60명을 발표했다.

선거구별로 동구가 문선화·김현숙·정이식, 동구나 노진성·김재식·박성영, 서구가 김형미·전승일·김수영, 서구나 임성화·정우석·오광록, 서구다 고경애·백종한, 서구라 안형주·윤정민·강선주 후보가 선출됐다.

남구가 남호현·김경묵·김광수, 남구나 신종혁·황경아·정창수, 남구다 박상길·오영순·서상기 후보가 본선에 나선다.

북구가 고영임·전미용·고점례, 북구나 신정훈·김건안·최무송, 북구다 이숙희·김영순·양옥균, 북구라 정달성·김형수·이부일, 북구마 황예원·임종국·주순일, 북구바 한양임·정재성·강성훈 후보가 공천을 받았다.

광산구가 양만주·정재봉·박현석·정성범, 광산구나 윤혜영·김명수·공병철, 광산구다 박해원·조영임·이혜경, 광산구라 이우형·김미애·윤영일, 광산구마 김영선·김태완·김기순 후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원희룡 "붕괴참사 재발하면 기업망하고 공무원 감옥가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은 지난 29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와 같은 사고가 다시 일어난다면 기업은 망해야 하고 공무원은 감옥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위원장은 이날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인근 주상복합 피해 상인, 입주 예정자 등을 위로하며 이같이 말했다.

붕괴 아파트 22층과 26층 등 내부를 둘러본 원 위원장은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의 현장 책임자로부터 철거범위 등 사고 후속 조치 계획도 보고 받았다.

붕괴사고 현장 방문을 마친 원 위원장은 국토안전관리원 호남지사를 방문해 담당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한 안전 강화 회의를 열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